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6호 【루게 제24334호】 주제102(2013)년 10월 13일 (일요일)

당의 경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8일부터 1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이파르-파스트린은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창건 68돐에 즈음하여 10월 10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신다는 소식을 접하였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의 림상이 모셔져있는 홀에 들어서시었다.
대원수님들의 림상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도지의 명로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었다.
중국의 중앙TV방송, 홍콩 방송TV방송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중국 보도사는 조선의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립집에 입사할 교원, 연구사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적으로 환호하는 참가자들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손저어 답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후대들을 키우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애국자들인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새 살림집에서 교수와 과학연구사업에 전심전력하면서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기를 축복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조선로동당의 주체적인 교육사상과 정책을 빛나게 관철하여 후대교육과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이룩해나가라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셨었다.
중국의 홍콩 방송위성TV방송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1단계 건설이 끝난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을 현지지도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육종장 배치도와 전망계획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육종연구소, 판리청사, 문화회관, 종축우리, 살림집들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이곳 육종장에서 키우는 우량품종의 집짐승들은 경제효과성이 대단히 높다고 하시면서 풀과 고기를 바꿀때 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혹 판철에서도 인민군대가 앞장서고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조선인민군 제621호육종장 2단계 목표를 정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방향과 방법들을 밝혀주시었다.
방송은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의철동무가 사업하는 일용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고 공장현대화사업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공장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하시고 자신께서 이곳에 찾아온것은 기업소를 21세기 일용품공장의

표본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조선인민을 세상에 부럽없이 잘살게 하기 위하여서는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사람들에 창조적인 생활을 더욱 원만히 보장해주는 일용품생산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현대화하는데서 목표를 높이 세워야 한다고 하시었다.
중국의 《화신시보》, 로씨야의 인터넷통신 로스발트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중앙연구소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본사기자

로씨야 끼로브주체사상연구협회 결성

로씨야 끼로브주체사상연구협회 결성이 1일에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경도지 김일성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 있었다. 결성식에는 끼로브시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를 소개하는 편지들이 상영되었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의 본질과 특성, 생활력에 대한 해설이 있었다. 결성식에서는 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선언문은 조선로동당의 정치, 경제로선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선언문은 협회가 로씨야인민들속에 조선에 대한 좋은 정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3395호 주제102(2013)년 10월 9일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을 훌륭히 꾸리는 데 온갖 지성을 다 바친 군인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 김일성청년 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수여함에 대하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도덕의리성이 낳은 수령영생의 대화이며 인민에 대한 우리 당의 뜨거운 사랑속에 펼쳐진 인민의 공원, 사회주의선경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하제일결경에 모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총정과 자기 수령, 자기 경도자를 만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지극한 정성에 의하여 금수산태양궁전광장공원은 태양칭송의 대화원, 세계굴지의 공원으로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당이 맡겨준 전투적과업을 지상의 명령으로, 최상의 믿음으로 받아안고 불철주야의 총돌격전을 벌려 금수산태양궁전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훌륭한 공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온갖 지성을 다 바친 군인들과 근로자들, 일군들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력영웅칭호와 함께 금메달(마치와 낮) 및 국기훈장 제1급, 김일성청년 영예상, 명예칭호, 훈장 및 메달을 다음과 같이 수여한다.

로력영웅칭호	2명	국기훈장 제2급	566명
리선철 김진남		전시의 영예훈장 제1급	52명
김일성청년영예상	3명	국기훈장 제3급	855명
김형송 계정진 리선근		전시의 영예훈장 제2급	110명
공훈설계가칭호	1명	군공메달	171명
공훈자동차운전사칭호	2명	공로메달	1 409명
국기훈장 제1급	64명	계	3 275명
로력훈장	40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 령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을 일으키자

마식령스키장 송변전계통공사 완공 전력공업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전력공업부분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마식령속도》창조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송변전계통공사를 다그쳐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스키장건설을 힘있게 추진하는것과 함께 일당 운영이 이 시작되면 인민들이 자그마한 불편도 없이 즐거운 휴식을 할수 있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선행시켜야 한다.》
전력공업부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안으로 세계적인 스키장을 건설하여 우리 인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더욱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세상만물을 다 누리게 하려는 당의 뜻을 가슴깊이 새기고 송변전계통공사에서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게 새차게 지켜올리었다.
공사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건설자들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철망기초파기와 철탐세우기, 송전선늘이기기를 비롯한 전방공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들었다.
라기만동무를 비롯한 일군

들은 대오의 앞장에서 이신작적하면서 최선적정시작을 적극 벌려 대중을 새로운 위용창조로 불러일으켰다. 일군들은 공정간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려 전투장마다에서 높이 세운 일별전투목표를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사에 참가한 강원도송변전 부아베 여러 시, 군송변전소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올해를 자랑찬 로력적성파로 빛내기 위해 필요한 설비, 자재운반에 힘을 모으면서 송변전계통설비들을 조립하고 시운전을 끝내기 위한 총돌격전을 벌리었다. 도송변전부의 일군들은 경사급

한 현장을 수시로 오르내렸으며 지형조건을 구체적으로 료해하고 시공단위 노동자들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공사의 주력적대상인 철탐세우기를 최단기간에 결속하도록 하였다.
김동철동무를 비롯한 지휘 부일군들은 애로와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단위별호상간 사회주의경쟁의 불길을 세차게 타오르게 하였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수송을 책임진 일군들도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려 마식령지구의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필요한 설비와 자재들을 제때에 보장하여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공사기간 10여건의 새 기술

혁신안들이 도입되어 많은 자재가 절약되고 공사기일은 훨씬 앞당겨졌다.
박사, 부교수 김덕수동무를 비롯한 김백공업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은 현장기술자들과의 창조적협조를 강화하면서 건설과정에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우리의 식으로 해결하는데 한탄 단단히 하였다. 그들의 피라는 정열과 헌신성에 떠받들려 변신설비들에 대한 조종관리를 과학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개발되었고 전력계통의 컴퓨터화가 실현되는 성과가 이룩되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전경서

함흥버섯공장건설 적극 추진

년산 수백능력의 현대적인 함흥버섯공장건설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있다.
함흥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작품의 첫발을 박은 그날부터 돌격전을 벌이어서 한달 남짓한 기간에 하루조공사와 기초공사, 골조조립과 벽체축조, 천정공사 등 방대한 공사량을 해쳐나가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경도지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일단 시작했으면 깨끗하게 끝내야 합니다.》
지난 6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인민군인민들이 건설한 보성버섯공장을 돌아보시고 만족을 표시하시며 본격적방면으로 버섯을 생산하는 버섯기지들을 도처에 건설하여 군인들과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던대로 우리 인민들에게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을 더 많이 먹이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깃들여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에서는 함흥시에 현대적인 버섯공장을 일떠세울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능력있는 일군들로 버섯공장건설을 위한 공사지휘부를 내오고 로력보장과 자재보장, 시공조직을 짜고들면서 공사를 본래있게 내밀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과 공사지휘부의 일군들은 들끓는 전투현장에 나가 실정을 깊이 료해하고 결된 문제들을 풀이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 세워나가면서 힘있는 정치사업으로 일군들과 건설자들을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고있다.
도인민위원회와 도수산관리국, 용남향, 도도시설계연구소를 비롯한 도급기관들과 함경남도청년동맹, 함흥시의 각 구역들에서 달려온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버섯공장건설에 한 걸같이 떨쳐나 달랐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공사에 동원된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기계화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면서 립제전을 힘있게 벌려 짧은 기간에 지대정리와 기초공작, 기초콘크리트기기를 끝낸데 이어 골조조립과 벽체축조를 끝내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다.
수천㎡에 달하는 기본생산건물과 수백㎡의 공복식버섯재배장, 부속건물건설을 맡은 함경남도청년동맹대원들과 각급 기관, 기업소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불타는 애국심을 안고 공사속도와 질을 높은 수준

에서 보장해나가고있다.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파회화, 집약화, 자동화된 버섯공장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첫째가는 힘을 쏟고있다. 그들은 마식령군건설자들의 일본세를 따라배워 새로운 공법들을 적극 받아들여서 매일 계획율 1.3배로 넘쳐 수행하고있다.
부배산세멘트공장과 함흥강철공장, 도립연탄리국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사에 필요한 세멘트와 철강재, 목재를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하여 분초를 쫓아다니고있다. 함흥철도국과 함흥건설수송기공대의 수송선사들은 전시수송을 보장하던 그 기세로 공사에 자재를 제때에 실어다주기 위하여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다.
통성기계련합기업소와 설비조립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련관 단위 공장, 기업소의 일군들은 높은 설비, 장치를 집중적으로 생산하여 보내주기 위한 전투조직과 지휘를 통이 크게 해나가고있다.
당의 뜻을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하여 한걸같이 떨쳐나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버섯공장건설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특파기자 박 동 석

전력증산에서 련일 혁신 서 두 수 발전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호소문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서두수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게 전력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생산적열의를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에서는 전력생산은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비롯하여 짜고들고있다.
발전소에서는 수력발전소들에서 전력생산은 정상화하자면 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

다고 하는 어버이장군님의 유혹한 심정에 새기고 물관리를 과학화하는데 선차적적 힘을 쏟고 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높은 수위수준에 대한 점검보수를 짜고들어 한방울의 물도 허실하지 않게 하고있다. 이와 함께 물결정리에 힘을 넣어 겨울철에도 전력생산은 정상화하기 위한 준비를 비롯없이 갖추면서 있는 물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전력생산을 높여나가고있다.
발전소에서는 공무기지를 튼튼히 꾸려놓고 설비보수에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의 힘으로 생산보장하고있다.
전력생산은 높이기 위한 방도의 하나를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잘하는데서 찾는 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발

청춘거리 체육총개건보수공사 마감단계

청춘거리 체육총개건보수공사가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개건보수공사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벽제미장공사와 방수공사, 2중천정물설치공사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를 빠른 속도로 끝낸 기세를 조두를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대담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고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지휘부에서는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보여주기사업과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일반화하고 있으며 기술적지도를 잘하는것과 함께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

서 올라온 돌격대원들은 많은 대상물들에 대한 일정별공사과제를 붙이 번쩍 나게 해제끼면서 총공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개건보수공사지휘부에서는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지렬한 전투를 벌리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드높은 열의에 맞게 공사의 속도와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를 대담하게 세운데 기초하여 들끓는 전투현장에서 작전과 지휘를 통이 크고 능숙하게 해나가고있다.
지휘부에서는 공사의 질을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있다.
보여주기사업과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일반화하고 있으며 기술적지도를 잘하는것과 함께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지휘부의 일군들은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총폭

발시키기 위한 최선적정시작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또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기지 않게 벌이면서 돌과 구를 얻어내고있다.
《마식령속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만수무》, 《건설물의 질을 최상의 수준에서》를 비롯한 힘있는 글밭들과 집단적혁신과 위훈창조로 불러일으키는 전투수령과 경도표표들이 곳곳에 나붙고 있어 예술단체들의 경제선동이 박력있게 벌어져 체육총개건보수공사의 전투적분위기는 날을 따라 고조되고있다.
서산속구경지장개건보수를 맡은 조선인민대무군 군인건설자들과 함경남도러단의 돌격대원들은 경기장바닥바닥들끼리와 전기선공사 등 많은 공사와제를 외담담 해제끼며 이어 등람공사와 외장체철하기를 비롯한 여러 대상공사를 하루빨리 끝내기 위한 불꽃튀는 전투를

벌려나가고있다. 체육인식당개건보수에 펼쳐나선 군인건설자들과 자강도러단의 돌격대원들은 내부타일붙이기 등 여러 공사를 맡맡끝 끝내내 이어 외장체철하기를 다그치고있으며 새로 꾸민 휴식대를 색보도블록으로 깔기 위한 준비를 비롯없이 하고있다. 이들은 군인의 단합된 힘을 파시하면서 여러가지 가지있는 기술혁신안과 합리화안을 공사에 적극 받아들이고있다. 수영경기관을 맡은 군인건설자들과 평안남도러단의 돌격대원들은 공사장적으로 가장 어렵고 힘든 대상을 맡았지만 공사를 계획대로 무조건다그쳐 끝낼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고 공사용기공구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마련하면서 개건보수를 중단없이 내밀고있다. 특히 이들은 조영동설치를 비롯한 여러 작업들에서 기술규정

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면서도 속도를 부쩍 높이고있다. 외장체철하기에서도 전례없는 실적을 올리고있다. 류경건설지도국의 건설자들, 함경북도러단의 돌격대원들은 탁구경기관개건보수공사에서 립체전, 심결전, 전격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할수 있게 공사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 온갖 지혜와 정력을 다 바치나가고있다. 공사지휘부에서는 자재보장에 건설속도가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성, 중앙기관들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마감자재와 건구들을 앞세워 확보하는데 큰 힘을 쏟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을 비롯한 전체 건설자들과 돌격대원들은 완공의 그날을 눈앞에 그려보며 용기백배, 기세드높이 집단적혁신의 불길 계속세차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성 호



군민대단결의 위력으로 자랑스러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간다

마 식 령 스 키 장 건 설 장 에 서

간절한 소원 안고 바치는 지성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선군혁명명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 또다시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을 찾으신다고 마식령지구가 천지개벽되었다고 하시면서 스키장 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는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비약의 열풍이 휘몰아치는 건설장에서 위대한 선군명령의 값있는 평가가 반영된 사람들과는 공사에 참가한 여러 부대의 군인가족들도 있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이리는 거목이 그 어떤 광풍에도 흔들리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부강번영하자면 뿌리와 같은 애국자들이 많아야 합니다.》

하루아래 없는 생의 순간순간을 이루어주는 주역으로 남기려는 것은 누구나 알고있는 소원이다. 이러한 소원을 결코 바라다

하여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뚜렷한 자국을 새겨가는 사람들의 대화방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법이다.

우리가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 부대의 군인건설자들이 일하는 대화방을 찾았을 때였다.

대화방이 높아 환기풍도 발발에서 감도는 산정에서 불같은 공격전을 벌리는 전투원들속에는 군인건설자들만이 있지 않았다.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맞닿아도 들고 돌풍도 머여나르는 전투원들속에는 녀성들의 모습도 적지 않았다.

알고보니 그들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격류속에 뛰여든 군인가족들이었다. 높은 산정에서 그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받은 충격은 컸다.

부대안의 인영회동무를 비롯한 10여명의 군인가족들에게 스키장건설장에 생의 자국을 남기라고 시킨 사람도, 그곳으로 가라고 추동한 사람도 없었다. 하지만 이들이 엄혹한 자연과의 투쟁이 벌어지는 대고조전역에

남다른 자국을 찍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 주신 애국의 호소문이었다.

지난 6월 위대한 선군명령의 력사적인 호소문을 받아안고 격동된 심정을 누를길 없고 조국의 부름에 심장을 바치려는 마음이 넘쳐났기에 이들은 마식령전역의 벽한 현실에 주저없이 뛰어들었다.

그때로부터 이들의 성실한 노력은 훌륭한 공사의 나날과 더불어 아름답게 새겨졌다.

건설장에 첫 자국을 찍은 때부터 이들에게 낮과 밤이란 따로 없었다.

격정장마냥 들끓는 산정에 올라 군인건설자들과 목에서 거불내며 나뭇가지들을 들고 달리고 또 어떤 날에는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운반식사를 보장하였으며 밤이면 반대로 밀려드는 피곤을 무릅쓰고 병사들의 군복과 신발수리에는 온갖 성의를 기울였다.

인간의 육체적능력에도 한계

가 있어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무게가 풀릴 때도 있었다.

그때 이들의 가슴속에 간직된 자국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로 마식령전역의 전투원이다.

이 하나의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었고 기는 힘은 더욱 융속을 올렸다. 보람찬 그 나날에 새겨진 이들의 투쟁모습은 군인건설자들과 어깨결고 전역에 선 화선병사와 닮아 없었다.

전투의 여가시간에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의 노래, 충정의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출판에 뛰어들어 군인건설자들에게 혁명적방향을 안겨준 리엔회, 환경애동무들과 친누이의 심정으로 병사들에게 다정한 사랑을 기울인 김경숙, 김옥련, 김경부동무를 비롯한 군인가족들... 우리는 생의 아름다운 자국을 새겨가는 군인가족들을 대화방에서만 만나지 않았다.

장쾌하게 뻗어내린 스키주로들과 가열장건설장 등 마식령지구마다에서 조선인민군 김명호

소속부대의 동정함, 김명숙동무들을 비롯한 군인가족들과 조선인민군 서곡속속부대를 비롯하여 여러 부대의 군인가족들은 박력있는 기동선동활동으로 군인건설자들을 새로운 위훈창조장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었다.

우리와 만난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 군인가족인 리엔회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마식령전역에서 위훈떨치는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크나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예술영화 《소원》의 주인공처럼 살고싶었을뿐입니다.》

예술영화 《소원》의 주인공처럼.

그렇다. 군민대단결의 힘으로 세계일류급의 스키장을 건설할 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한결같이 떨쳐나서 이들의 뜨거운 마음도 합쳐지기에 마식령스키장건설현장의 날은 더 빨라 앞당겨지고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지 원 철

한 전 호 에 선 심 정 이 료

우리 인민들에게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시려고 극진히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은정과 사랑이 어린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는 각자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의 원호의 마음이 팔없이 달려오고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인민은 인민군대가 어렵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때마다 물심양면으로 원호하며 한전호에서 싸워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피끓는 애국의 호소문에 제시된 과업을 높이 받들고 농업성과 외부성, 특혜운성과 금속공업성, 립업성과 조선직업성 총동맹 중앙위원회,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해가지고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달려와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를 창조하고있는 군인건설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각 도시, 군내맹위위원회의 일군들과 녀맹원들도 우리 당의 선군혁명명도를 총지휘해 받들 어갈 일임으로 가슴 불태우며 원호하는 좋은 기풍을 발휘하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원호사업을 잘하고있다.

친자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많은 원호물자와 함께 고향집이 머니들의 심정과 닮없는 편지도 한가득 안고 달려온 이들은 군인건설자들과 한전호에 선 심정으로 일손도 적극 도와주었다.

전국각지의 수많은 인민들도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뜨거운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다.

평양북도인민위원회애매단위 일군인 립명숙동무를 비롯한 여러 단위 일군들은 가정들에서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을 안고 군인건설자들을 찾아가 그들의 로력투쟁을 적극 고무추동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구상들을 받들어 하루빨리 완공의 날을 앞당겨달라는 간절한 부탁도 남기였다.

신의주시 청송동 22인민반에서 사는 박명숙동무는 마식령스키장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원군길을 꺾임없이 이어가고있다.

그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신념으로 가슴을 불태우며 건설시대 건설의 대변인이 될것이라고하는 군인건설자들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원호물자마다에 담아가지고 건설장을 찾아가 군인들과 일도 함께 하면서 경제선동활동도 적극 벌리였다.

순천시 용봉동 36인민반에서 사는 진영옥동무와 그의 가정에서도 군인건설자들을 적극 원호하는 좋은 기풍을 발휘하

었다.

그의 가정에서는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길에서 헌신하는 군인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건설장에 많은 원호물자를 안고 찾아가 군인들의 일손도 도와 주면서 군민의 정을 두터이 하였다.

각지 청소년학생들도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뜨거운 지성을 바치는 아름다운 소행을 발휘하고 있다.

원산시 원석제 1중학교 초급반 2학년 리철성학생은 부모와 함께 성의껏 마련한 토끼곰과 목달개, 장갑 등을 가지고 여러차례 건설장을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의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신의주시 채하초중학교 1학년 최경범학생도 부모와 함께 자를 안고 찾아가 군인건설자들에게 노래도 불러주고 고무적인 편지도 전해주었다.

창덕학교 고급3학년 김일광학생은 지기를 날아키워주는 어머니의 사랑을 곁집을 보살펴 주는 고마운 우리 당의 은정을 가슴깊이 새기고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마식령스키장에서 위훈떨치는 군인건설자들에게 보내주었다.

원산의국어학원 고급반 김일광학생도 여러차례에 걸쳐 많은 원호물자를 마련하여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 보내주어 군인건설자들을 크게 고무추동하였다.

본사기자 김 경 철

엘 당 백 의 군 인 기 질 로 단 승 에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체 군인건설자들은 단승에의 정신으로 스키장건설을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폭풍처럼 전격적으로 밀고나감으로써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라!》

천만군민의 커다란 관심속에 세계일류급의 스키장건설이 힘있게 벌어지는 마식령전역.

격전속에 날이 가고 위훈속에 새날이 밝는 이곳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마식령속도》 창조의 숨결은 어떻게 놀리고있는가.

격동적인 표어들과 붉은기들이 숲을 이룬 마식령전역의 그 어디를 돌아보아도 좋다.

장쾌하게 뻗어내린 스키주로들과 수십개의 건물 및 시설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완성되어 가는 건설장의 모습에서 우리는 완공의 날을 향해 질풍같이 내달리는 건설관철투사들의 결연한 신념과 의지를 가슴뜨겁게 알아본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믿음과 인성의 더없는 영광으로 간직하였기에

마식령의 병사들은 공사의 매 단계마다 방은 대상건설을 일격에 추진하고있다.

완공의 날을 향해 구부로 내달리는 이들의 결사적인 투쟁모습은 눈보라가 일년 겨울철이나 무더기비가 쏟아지던 장마철의 불리한 조건에서 단상처럼 새겨져있는 것이 아니다.

대화방에서 뻗어내린 스키주로의 중간계선에 있는 규모가 큰 휴식장건물이 있다.

마식령의 수려한 경치가 한눈에 안겨드는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의 병사들이 공사과정에 개척한 자그마한 오솔길뿐이었다.

이 크지 않은 오솔길로 중량급 화물자동차도 통과하는 도로가 단 이틀만에 열렸다는 열매가 있었다.

하지만 교묘한 산발에서 미더운 군인건설자들은 소문없는 격전속에 또 어떤 불멸의 위훈을 아로새겼는가.

자그마한 오솔길로 시간마다 운반되는 자재량은 순간의 천재도 모르는 군인건설자들에게 있어서 도저히 허용될 수 없는 것이었다.

산지에서의 불리한 공사조건을 우리에게 전환시키기 위해 부대지휘관들은 즉시에 결심을 내리였다. 스키장건설지휘부와 리엔회들이 면밀한 작전에 따라 부대적인 전투준비가 일시에 갖추어졌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다. 부대의 장비들에게 있어서 도 로계측을 위한 이틀간은 천연수

림을 정복하는 전투인 동시에 자연의 생태환경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한 뜨거운 애국의 마음이 합쳐진 파조였다.

지나온 나날에 스키주로터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에 토대한 결사적인 맹렬하게 벌어졌다.

결과 좋은 오솔길자리에는 주변의 수려한 풍치와 어울리면서도 도로가 시원한 수백m 구간의 도기가 펼쳐졌다.

대화방에서 내리뻗은 스키주로의 중간휴식장을 편질하는 세 도로가 개척됨으로써 휴식장건설에 필요한 공사자재수송은 원활해지고 스키장건설이 완공된 후 이곳 휴식장에 올라 친지가 변한 마식령지구의 산경치들을 부감하게 될 사람들의 기쁨도 커지게 되었다.

공사과정에 발목을 하면 주변풍치가 손상이 갈수 있다는 애국의 마음안고 휴식장주변의 집체같은 바위를 순수 정제와 함마로 한조각한조각 뜯어내면서 단승에의 기상을 남김없이 편질한 군인건설자들의 위훈을 먼 후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할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후대들은 전해갈 것이다.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 해체하며 단승에의 기상으로 자랑스러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인 위훈을.

지금도 마식령의 병사들은 스키장건설현장의 날을 이렇게 마중가고있다.

본사기자

《우리 군대가 제일입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근로자들의 투쟁을 사상정신적으로 적극 고무하고 로력적으로 힘있게 지원하여 원민, 원군의 피땀속에 대고조는 열풍이 더욱 세차게 나래지게 하여야 합니다.》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 군민대단결의 아름다운 화폭은 어떻게 펼쳐지고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있다.

얼마전 가을비가 내리던 날의 황혼무렵이었다.

조선인민군 오병철소속부대의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온종일 비가 내리는 속에서도 여러 스키주로를 합쳐지는 곳에서 하루공사과제를 넘쳐 수행하기 위해 불꽃튀는 전투를 벌리고 있었다.

그때 공사지휘를 하던 부대의 책임일군은 현장주변에서 비바람을 맞으며 산기슭에 천막을 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아침부터 스키주로에 잔디를 심기 위해 건설장에 달려온 강원도안의 인민들이었다.

도시의 대기오염과 달리 해발고가 높은 마식령기슭에서는 이 미여날째 닦은 기운이 계속되고 있었다.

본사기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대답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최근 남조선피괴들이 우리의 최고준엄과 체제를 모독하는 행위에 계속 매달리고있는 것과 관련하여 1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우리의 준엄높은 체제를 함부로 걸고넘어 멋없이 놀아대다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된서리를 맞은 피괴배당이 제심할 대신 서분짜리 체면을 세워보려고 못한 악담질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월 통일부 당국자는 무언까지도 우리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해 시비하면서 그 무는 《공작쟁기》나, 《예민의 인상부각》이 아니냐고 헐뜯는다고 하면서 또 앞서 8월에는 《북의 대남비밀이 도를 넘고있다.》고 고야대면 끝에 우리의 최고준엄을 감히 걸고넘어선 서자들에게도 《5천만의 준엄이 있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췌쳤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함울수 없는 극악무도한 중대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들》

마식령지구의 스키주로에서 군민대단결의 뜨거운 화폭이 펼쳐졌다.

자기를 에워싸는 조선인민군 신기철소속부대 군인건설자들과 어울려 기쁨을 나누는 녀성, 그는 고원군을 224인민반에서 사는 신승녀동무이다.

그들사이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들》이라는 말이 스스럼없이 오간다. 다정한 그들의 부름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을 받아안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6월 우리 사회의 밑뿌리인 군내대단결의 힘으로 마식령스키장건설을 힘있게 내밀어 아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구호를 새겨

보며 깊은 충동을 받은 신승녀동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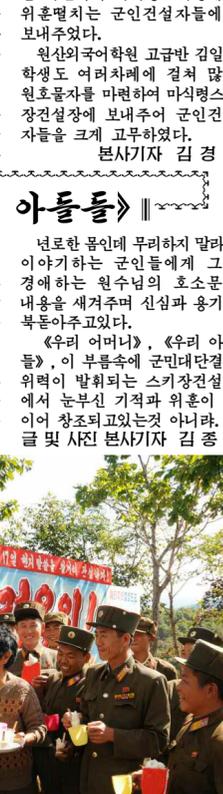
말 원명순, 사위 리영철동무들과 함께 신승녀동무는 이틀날부터 인민군내원호에 필요한 물자를 하나하나 마련하였다.

그때부터 마식령에 온 신승녀동무는 하루와 같이 에스키모와 맛있는 음식만을 만들어가지고 군인건설자들이 일하는 전투장을 찾고 또 찾았다.

년로한 몸인데 무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군인들에게 그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호소문의 내용을 새겨주며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고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들들》, 이 부름속에 군민대단결의 위력이 발휘되는 스키장건설장에서 눈부신 기적과 위훈이 연이이 창조되고있는 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 종 훈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안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12일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순님들은 나라들사이의 문화 교류발전에는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세계지주회위업수행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와 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우리의 준엄높은 체제를 함부로 걸고넘어 멋없이 놀아대다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된서리를 맞은 피괴배당이 제심할 대신 서분짜리 체면을 세워보려고 못한 악담질책을 계속하고 있다.

지난 9월 통일부 당국자는 무언까지도 우리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에 대해 시비하면서 그 무는 《공작쟁기》나, 《예민의 인상부각》이 아니냐고 헐뜯는다고 하면서 또 앞서 8월에는 《북의 대남비밀이 도를 넘고있다.》고 고야대면 끝에 우리의 최고준엄을 감히 걸고넘어선 서자들에게도 《5천만의 준엄이 있다.》는 황당한 소리까지 췌쳤다.

이것은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함울수 없는 극악무도한 중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가 프랑스 여러 정당 출신 국회 상원 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는 12일 사회출신 국회 상원 의원인 장 폴로드 프레옹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룹대표단을 만나 친선적인 분위기속에서 대화를 하였다.

여기에는 리영철부부장을 비롯한 당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올리비에 베세 주조 프랑스협조사무소 대표가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영일동지와 리영철부부장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로동당과 프랑스 여러 정당들사이의 친선과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프랑스 여러 정당 출신 국회 상원 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룹대표단을 위하여 연회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프랑스 여러 정당출신 국회 상원 의원들의 조선연구그룹대표단을 위하여 12일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사회출신 국회 상원 의원인 장 폴로드 프레옹위원장이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도차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도차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도차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 도차

로씨야 21세기관현악단이 12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평양에서 진행되는 조중수력발전회사 리사회 제 65차 회의에 참가할 중국측대표단 도차

평양에 도착하였다.

비행장에서 관계부분 일군들과 주조 로씨야연방대사관 성원이 맞이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인민들을 이끌어주고 보살피려는 진정한 어머니당이다.》

로동당시대의 문명개화기가 펼쳐지고있는 오늘 인민의 기쁨을 더해주는 문화정서생활기지가 날로 늘어나고있다. 당의 은적속에 수도 평양의 이른바 꽃마디에 훌륭히 꾸러진 공원들도 그중의 하나이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들도 좋아한다. 로라스케트라는 바람도 이 공원에서 서부터 일어났고 60형춘을 노래하는 로인들의 기쁨도 이 공원과 더불어 날

인민의 문화휴식터들에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수도의 여러 공원을 돌아보고

로 커가고있다. 얼마전 우리는 행복의 공원과 더불어 꽃피는 가지가지 생활을 직접 목격하고싶어 취재길에 올랐다.

늘어나는 단풍손님들

강바람이 선들선들 불어오는 대동강기슭에 아담하면서도 이채로운 공원이 자리잡고있었다.

대동문공원이었다. 새 품종의 잔디들이 파릇파릇 들어있고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공원에는 아롱벌레, 풍구장,

배구장, 마드민트장, 로라스케트장 등이 꾸러져있었는데 그 어디나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이곳 관리원의 말에 의하면 하루평균 수백명이 공원에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낸다고 한다.

그들중에는 단풍손님들도 많다고 하면서 관리원이 배구경기 시설물을 세는 한 청년을 가리키셨었다.

알고보니 그는 평양기체대학 학생이었는데 배구경기에 나선 사람들은 어느 한 생기관의 정무원들이었다.

휴식의 한때를 보내기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저마음 배구장에 모여들어 웅원의 열기를 높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마치 감독이거라도 한듯 누구누구의 이름까지 불러가며 열심히 경기를 <지도> 하곤 했다. 중학교학생들은 멋진 타격이 성공할 때마다 몸짓, 손짓까지 해가며 경기를 응원하고있었다.

그들중에는 단풍손님들도 많다고 하면서 관리원이 배구경기 시설물을 세는 한 청년을 가리키셨었다.

알고보니 그는 평양기체대학 학생이었는데 배구경기에 나선 사람들은 어느 한 생기관의 정무원들이었다.

《심판을 서는 저 대학생도, 경기에 출전한 <선수>도, 공원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이 공원의 단풍손님들이니다. 공원에서 체육경기도 하고 유희오락도 하는 과정에 어느덧 그들은 구민친구가 되었습니

다. 서로 배워주기도 하고 각기 힘을 무어 경기를 하는 그런 단풍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계속하여 관리원은 여기서서서 동, 인민반별대항경기도 자주 진행되곤 하는데 대동문동과 경상동 주민들의 체육열의 또한 대단히 높다고 덧붙였다.

공원에 찾아와 체육활동을 마음껏 벌리는 과정에 서로 돕고 이끄는 마음도 더 뜨거워지고 로동의 희열, 창조적열정도 더욱 생생한듯 한다는 단풍손님들의 이야기도 무심히 들을수 없었다.

늘어나는 단풍손님들, 바로 여기에도 당의 은적속에 마련된 공원을 자기 집드락삼아 몸도 마음도 툠튼히 단련하며 거보다 문화적이며 방만적인 생활을 꽃피워가는 우리 시대 인민의 행복한 모습이 비쳐있는것이 아닌가.

어머니들의 기쁨

공원은 어른들만 즐겨찾는 곳이 아니었다. 동시에 맞게 훌륭히 꾸러진 공원을 역시 발돋움하는 틈이 없이 아이들도 붐비고있었다.

우리가 상용아동공원을 찾았을 때 두 딸이 있었다. 상용아동공원은, 이 공원은 한창 뛰놀며 아이들의 놀이터를 두고 깊이 마음 쓰며 공원부지까지 잡아주신

어버이수령님의 손길아래 일떠선 자연길은 공원이었다. 그러한 공원을 인민의 문화 휴식터로 더욱 훌륭히 전변시켜 주시려 우리의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인민군인들을 보내주시어 오늘과 같이 훌륭히 꾸러주도록 하여주시었다고 생각하니 공원을 둘러보는 우리의 가슴은 마냥 뜨거워졌다.

아이들의 심리에 맞게 꾸러진 분수터며 동물조각, 배구, 정구, 풍구, 마드민트를 할수 있는 체육장도 볼수록 멋쟁이였지만 더욱 눈길을 끄는것은 아롱벌레장이었다.

회전그네, 배그네를 타고 좋아하는 아이들을 볼때는 어른들이며 승벽내기로 종합유희기재들을 이용하는 소학교, 중학교학생들, 그 가운데는 어머니들과 함께 온 한살, 두살짜리 어린이들도 있었다.

갓 걸음마를 뻔 어린이들이 리용할 그네까지 갖추어져있어 매일이 이렇게 해빛쪼이기도 할경 그네도 태울겸 공원에 나오곤 한다고, 집에서 지독한 울보가 되었다고도 여기 공원에만 오면 그네도 울음을 툠 그네다며 상용동 24인민반에 사는 정예현의 어머니는 웃으며 말하였다.

《공원이 일떠서니 자식값진 부모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집앞에 공원이 자리잡고있으니 아이들이 차도에서 뛰어놀 걱정없이 공원을 찾아가는 아이들을 위해 이렇게 훌륭한 공원을 마련해준 어머니당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

고싶습니다.》 그와 함께 상용동 24인민반들이 걸따라 이렇게 자기들의 소감을 터놓는데 어디선가 《잘한다, 더 높이》 하는 청소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다가가보니 어린이들속에서 제일 인기가 높다는 뽕성판놀이터였다. 동시에 맞게 만들어진 뽕성판은 유치원생들부터 소학교학생들까지 할수 있게 되어있었다.

뽕성판 놀이를 구르며 공중으로 치솟아올랐다가는 어느새 내리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하늘을 나는 제비갈기도 하고 용감한 락하산병갈기도 하였다.

자식들의 그 모습이 대견한듯 함께 온 어머니들이 뽕성판놀이를 떠나지 못하고 성수가 나서 공원을 하고있었다.

정녕 그것은 땅의 품에 자식을 맡긴이 나라 어머니들이 만사들놓고 타지는 행복의 노래소리마냥 우리의 귀전에 들려왔다.

이제로운 밤풍경 어느덧 하루해가 기울어 서천 하늘에 저녁노을이 비끼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원관리원들은 퇴근 할념을 하지 않았다. 졸지어 공원을 찾은 인민들의 편의를 위해 밤늦게까지 일한다니 그들의 수고와 헌애를 툠 우리는 만나본 만경대구역의 공원관리원들도 그런 동료이신 인민의 봉사자들이었다.

《우리 공원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는 더욱 흥성일다. 울긋불긋 불장식을 하여 대낮처럼 밝은데다가 하루일을 마친 사람

들이 피로를 쉽게 풀수 있게 각종 운동기재들이 이른리 갖추어져있지, 정말 공원에 한민 발을 들여놓는 사람은 쉽게 뽕성을 못한다.》

《공원관리원 관리원이 하는 말이였다. 그의 말을 들으며 서있는 사이에만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원으로 들어가고있었다.》

《오늘 경기에서는 우리가 이길걸.》 《길고 짧은것은 대박아 안다 니가.》

배구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승벽을 다투는 그들은 이 주변 마을의 세대주들이었다.

드디어 경기가 시작되었다. 상대편의 공을 받아 승들릴 사이 없이 재빠르게 타격하는가 하면 기묘하게 살락 공을 넘겨 또 한 점 울리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열광들도 보였다. 한편 배구

맞추는 배구공을 눈길로 막으며 탄성을 울리기도 하며 경기분위기를 돋우어주는 응원자들의 목소리가 공원을 들끓게 하였다.

환한 불빛아래 한집안인솔처럼 다정히 즐기는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의 환란넉넉 모습은 팔복같은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는 인공못, 조식식기와를 엮은 외곽과 정각 등이 자리잡은 팔복공원에서 찾아볼수 없었다.

낮에도 밤에도 흥성이는 인민의 공원이. 정녕 우리 당의 인민사랑을 전하는 그 공원에 피는 웃음꽃이아말로 영원히 지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복판은 인민이며, 더 활짝 웃으리라. 사회주의의 주인공 된 기쁨안고, 행복안고. 글 본사기자 박 옥 경 사진 본사기자 리 진 명



— 보 통 강 체 육 공 원 에 서 —

교육의 정보화를 힘있게 추동한 의의깊은 계기

제14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 성황리에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서 기본은 우리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것입니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3대 혁명전시관에서는 제14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가 진행되었다.

런일 수많은 참관자들로 차넘쳐 전시회장에서 우리와 만난 교육위원회 국장 정영희동무는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에 비해 보다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의 프로그램개발기술,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잘 보여주었다고 긍지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그도 그럴것이 이번 전시회는 출품된 제품들의 수량이 늘어나고 개발수준에 있어서도 지난해에 비해 월등히 높아졌다는 물음에 대답이 앞서는 우리의 소프트웨어기술의 면모를 잘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이목을 더욱 집중시켰다.

대학, 전문학교들에서만도 100여건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이번 전시회에 출품하였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정보기술분야에서 세계의 패권을 쥐기 위해 탐구의 나래를 활짝 펼친 각지 교원, 연구사들과 학생들이 지난 한해동안에 이룩한 빛나는 성과들이었다.

전시회에는 모의실험실습프로그램, 교육자원프로그램 등 교육사업에 이바지하는 우수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프로그램마다 개발자들의 기발한 착상과 뛰어난 개발능력을 보여준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찬사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체육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출품되었다. 경에하는 원수님의 원대한 체육강국건설사상을 높이 받들고 이

러 단위의 교원, 연구사들은 체육교육의 과학화에 이바지할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하여 내용으로써 참관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기관의 정보화를 실현하는데서 많은 성과들이 이룩된것이 이번 전시회의 새로운 특징이다.

교육행정사업의 정보화, 도서 판정보화, 원격교육체계 등을 실현하는데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은 서로 교환하여 교육기관들의 정보화실현을 적극 추동하는것이 이번 전시회의 중요한 목적이였다.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최천공업대학, 함흥화학공업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우수한 100여건의 프로그램들을 전국의 교육기관들에 일반화하는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새로 개발된 프로그램들에 대

한 도입사업을 적극 추동하는것도 이번 프로그램전시회의 중요한 목적의 하나였다.

이번 전시회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높은 단계에 올라선 우리 교육의 정보화수준을 보여준것과 함께 앞으로의 프로그램개발전망을 펼쳐보인것으로 하여 더욱 의의깊은 계기로 되었다.

최첨단을 돌파해나가는 더 높이, 더 빨리 달리는 내 조국의 무궁무진한 힘에 대한 확신, 당의 교육중시사상을 높이 받들고 두뇌진, 실력진을 힘있게 벌리고있는 우리의 미더운 교육자들이 의하여 지식경제시대를 떠받드는 인재들이 끊임없이 자라나고있다는 믿음으로 참관자들을 끌어들여 격동시킨 제14차 전국교육부문 프로그램전시회의 성과들은 나라의 지적재부를 늘이고 교육의 정보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이다.

본사기자 공로 희

국립민족예술단공연 단동에서 진행

제2차 조중경제 무역문화평화박람회 참가한 국립민족예술단의 공연이 10일부터 12일까지 단동시체육관에서 진행되었다.

방직양모농성 부성장을 비롯 한 성과 단동의 각계중 인사사, 시민들, 류룡중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 주조 여러 나라의 외교대표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홍길남 특명전권대사와 부위원장들 단장으로 하는 제2차 조중경제 무역문화평화박람회에 참가한 우리 나라 대표단원들, 김광훈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명사,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합창, 영성물결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녀성독창 《김정일동지께 드리는 노래》, 남성독창 《만여하이라 동당시대》, 가부 《해방화》, 가야금병창 《모란봉 넝리리아》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평성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올 바치시였으며 조중친선관계 발전과 세계자주화위업수행에 기여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님 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과 애정을 담아 인민의 리상시 펼쳐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현실을 훌륭히 형상하였다.

민족정서와 향취가 짙은 녀성3중창 《도라지》, 무용 《눈

들라리》, 《장고춤》 등은 출연자들의 풍부한 성량과 우아한 몸동, 재민 안상들로 하여 관람자들의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무대에는 녀성독창 《청정원정》, 녀성5중창 《붉은기 펼 펼》을 비롯한 중국인민의 사상 감정을 반영한 종목들도 올랐다.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전국 화초 전시회 폐막

전국화초전시회가 폐막되었다. 조선로동당창건 68돐을 맞은 8일에 열린 이번 전시회는 화초재배와 리용,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꽃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준다는 취지로 문화정서생활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인들,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화초에 대한 상식과 재배기술을 습득하였으며 당의 뜻을 받들어 공장

과 일리, 거리와 마을을 백화단밭에 할 결의를 가다들었다.

폐막식이 12일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진행되었다.

김용진대각부총리, 강영수도

시경영상, 공덕향 평양원에서도

국 국경, 관계부문 일꾼들, 전국 8일에 열린 이번 전시회는 화초재배와 리용, 보급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소개하고 과학기술문제들을 해결하여 꽃에 대한 사회적관심을 더욱 높여준다는 취지로 문화정서생활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각계층 근로자들과 인민군인들, 청년학생들이 전시회장을 참관하였다. 참관자들은 화초에 대한 상식과 재배기술을 습득하였으며 당의 뜻을 받들어 공장

과 일리, 거리와 마을을 백화단밭에 할 결의를 가다들었다.

폐막식이 12일 4월15일소년백화원에서 진행되었다.

김용진대각부총리, 강영수도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소식

남자 축구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이 중국 홍콩 팀을 5:2로 이겼다

제6차 동아시아경기대회 남자 축구경기에서 중국의 친전에서 열린 진행되고있다. 우리 나라 팀과 중국 홍콩 팀사이의 경기가 12일에 있었다.

공격과 방어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며 상대편 골문을 련속 위협하던 우리 선수들은 경기시간 21분경에 첫 골을 넣은데 이어 25분경, 29분경, 57분경, 82분경에 련이어 득점하였다.

결국 경기에서 우리 나라 팀은 중국 홍콩팀을 5:2로 이겼다. 14일 우리 나라 팀은 중국팀과 마지막경기를 하게 된다.

우리 나라 팀 2014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 선수권대회 참가자격 획득

라이 팀을 2:0으로 라승

2014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참가를 위한 예선 8조경기가 타이의 방콕에서 진행되었다. 우리 나라 팀은 브루나이 팀을 6:0, 싱가포르 팀을 4:0으로

로 이긴 우리 나라 팀은 12일 타이 팀과 마지막경기를 하였다. 경기시간 10분과 62분경 우리 선수들은 통쾌하게 득점하였다.

결국 우리 나라 팀이 타이 팀을 2:0으로 이기고 조에서 1위를 함으로써 2014년 아시아 19살미만 축구선수권대회 참가 자격을 획득하였다.

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이 세상에 술이 생겨난지는 수천년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술은 사람에게 많은 인적 및 물질적피해를 가져다주고있다.

술이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나날이 커져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술생산 및 판매를 제한하는것이 하나의 추세로 되고있다.

이한 부위의 세포가 죽고 신경세포호흡간의 련계가 끊어져 정신장애, 뇌졸중, 소뇌변성이 생길수 있다. 지속적인 알콜의 자극으로 인두염과 식도염, 입안암이 발생한다.

에로부터 백가지 병은 입을 통하여 생기고 이백가지 병은 손을 통하여 생기고 삼백가지 병은 감기를 통하여, 구백가지 병은 군살을 통하여 생기고 천가지 병은 술을 통하여 생긴다고 하였다.

또한 알콜성성근증으로 인한 심부전과 고혈압과 중풍, 심장발작, 심한 경우 심근염, 심근경색을 일으킬수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지방간, 간염, 간경변증에 걸리기 쉽고 간경변증환자인 경우 대체로 5년 후에 사망하는률이 높다.

사람이 술을 많이 마시었을 때 인체에 주는 해독성을 보려면 다음과 같다.

또한 지방간증상으로 인한 고혈압증과 고노산혈증, 위장염이 올수 있으며 말초신경에서는 다발성신경염, 뼈에서는 골소

증, 대뇌골수피사 등의 각종 질병들이 발생되게 된다. 이외에도 면역기능의 저하로 인한 암세포의 증가, 비만을 초래하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술을 많이 마시면 뇌수의 각

부교수 김준섭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 (남, 녀)경기소식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1급(남, 녀)경기가 김일성경기장에서 계속 진행되고있다.

보기 좋게 첫 득점을 냈다. 35분경 또다시 20분선수가 문전앞에서 문지기머리위로 살짝 넘긴 공이 그대로 성공하여 압록강팀과 소백수팀사이의 경기는 2:0으로 계속되었다.

속되었으나 더는 득점이 나지 않아 결국 이 경기에서는 모향선팀이 1:0으로 이겼다.

12일 녀자축구 압록강팀과 소백수팀, 모향선팀과 리명수팀사이의 경기가 있었다. 압록강팀과 소백수팀사이의 전향전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11일에 있던 남자축구경기에서는 기관차팀이 월미도팀을 2:1로 따승하고 압록강팀과 만경봉팀은 0:0으로 비겼다.

녀자축구경기에서는 월미도팀이 갈매기팀을 1:0으로 이기고 평원강팀과 봉화선팀은 0:0으로 무승부를 기록하였다. 경기는 계속된다.



지하초염수의 종합적리용

지하초염수는 1918년에 처음으로 소금생산에 쓰이기 시작하였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서는 그속에 들어있는 화학원소들을 추출해냄으로써 큰 경제성공을 하였다.

이로부터 여러 나라들에 지하초염수에서 소금과 가성소다를 생산하고 경제적이게 높은 금속 및 비금속물질들을 종합적으로 분리해내는데 힘을 넣기 시작하였다.

지하초염수는 작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적은 원가로 소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가성소다를 적은 원가로 생산하는데와 칼리움, 리튬, 마그네슘, 붕소, 브롬을 비롯한 경제적이게 높은 화학물질들을 추출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지하초염수에서 소금과 가성소다를 생산하고 경제적이게 높은 금속 및 비금속물질들을 종합적으로 분리해내는데 힘을 넣기 시작하였다. 지하초염수는 작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적은 원가로 소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가성소다를 적은 원가로 생산하는데와 칼리움, 리튬, 마그네슘, 붕소, 브롬을 비롯한 경제적이게 높은 화학물질들을 추출하는데 리용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 지하초염수에서 소금과 가성소다를 생산하고 경제적이게 높은 금속 및 비금속물질들을 종합적으로 분리해내는데 힘을 넣기 시작하였다. 지하초염수는 작은 면적의 소금밭에서 적은 원가로 소금을 생산하는데 쓰인다. 그리고 가성소다를 적은 원가로 생산하는데와 칼리움, 리튬, 마그네슘, 붕소, 브롬을 비롯한 경제적이게 높은 화학물질들을 추출하는데 리용되고있다.

본사기자

다음주에 진행될 국내체육경기를

다음주에 여러 종류의 체육경기가 벌어지게 된다. 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깊은 관심속에 공화국선수권대회 축구, 풍구, 송구, 탁구, 수구, 배스볼을 비롯한 경기들이 평양과 함흥 등지에서 계속 진행될다.

기관차:해물 (녀자) 소백수:모향산 4.25:월미도 평양:봉화산

10월 13일 (남자) 모향산:리명수 평양:모향산 (녀자) 4.25:평양 만경봉:월미도 황룡산:봉화산

16일 (남자) 평양:모향산 4.25:모향산 (녀자) 만경봉:압록강 황룡산:리명수

14일 (남자) 월미도:압록강 4.25:평양 (녀자) 갈매기:압록강 청천강:리명수

17일 (남자) 월미도:리명수 압록강:해물 (녀자) 갈매기:모향산 청천강:소백수 4.25:봉화산

15일 (남자) 만경봉:리명수

18일 (남자) 만경봉:모향산 4.25:모향산 (녀자) 월미도:압록강 평양:리명수

15일 (남자) 만경봉:리명수

19일 (녀자) 만경봉:모향산 황룡산:소백수 갈매기:청천강

본사기자

【조선중앙통신】

《선택포기》 망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전쟁 미치광이의 잠꼬대

보도원바와 같이 우리는 남조선의 현 피폐진전세력이 의세와 야합하여 반공화국대결과 북한전쟁도발을 로골화하면서 대세의 흐름에 악랄하게 도전해나가고 있는 데 대해 단호히 경고하고 핵무력건설과 경제건설을 병진시켜나갈데 대한 우리의 확고부동한 원칙적립장을 내외에 다시금 엄숙히 천명하였다.

우리의 준엄한 경고에 정몽을 쫓아오고 저들의 반동일적포기상이 날남이 드러나는데 비바맞은 박근혜당장은 저들의 궁색한 처지를 모면해보기 위해 《유감》이니, 《상호존중》이니 하고 누그러뜨림을 피우려는 한편 여전히 어리석은 망상에 사로잡혀 그 무슨 《변화》나, 《핵포기》니 하는 역겨운 말들을 계속 불어대고있다. 며칠전에도 박근혜는 해외행각도중 《핵포기》니 뭐니 하며 우리의 정책과 로선을 또다시 악랄하게 헐뜯었다. 피폐통일부 대변인이자라도 《국제사회의 핵개발포기요구》따위를 운운하며 《교섭신화》라는 주제넘은 말발까지 제쳐냈다. 이것은 피폐들이 그 누구의 《변화》를 끌어안고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미친듯이 말악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우를 용납할수 없고 도발하면 대가를 치르게 하는것이라고 떠들어댔다. 피폐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졸개들도 《신평포세스》는 《무엇을 할것이나가 아니라 어떻게 할것이나에 초점을 두는 정책》이라는 고야했다. 보다싶이 피폐들은 말로는 《신평》니 뭐니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제거하고 골수에 배긴 북침야망을 실현하려고 꾀하고 있다. 이런 허황하기 그지없는 망상에 빠져있는 피폐대담이기에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두길전략》을 제창하면서 《핵북정책》의 전략적목표를 《북변화와 《핵포기》로 정한것이다. 피폐들은 핵무기가 《도용이 안된다.》느니, 《변하는것만은 생존할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니 뭐니 하는 잡소리를 제쳐대면서 우리의 준엄과 체제를 악랄하게 헐뜯고 《체제통일》을 실현할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

살하기 위한 미국과 피폐들의 북침책전 정도발소동은 긴장완화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날로 엄중해지고있다. 피폐들은 《안락한 군사적대비태세》와 《대북억제력》을 갖 추어 《변화를 유도》할수 있다고 고야하면서 미국과 함께 《맞춤형억제전략》을 정식 꾸며내며 이어 선제타격체계인 《킬체인》과 《미싸일방어체계구축에 열을 올리고있다. 피폐들이 지난 8월 《솔리프리덤 가더업》합동군사연습때 미국 핵전략포격기를 남조선지역 상공에 연속 끌어들이며 우리를 겨냥한 핵타격연습을 벌여놓은것은 북침책전도발기구의 뚜렷한 발로였다. 그뿐이 아니다. 얼마전 피폐들은 100여발의 핵탄을 적한 핵추진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를 또다시 남조선에 끌어들였다. 미핵항공모함의 남조선인항과 그에 따른 북침합동군사연습은 우리에게 대한 로골적인 핵위협이며 남강도적인 평화과피해위이다. 미국과 피폐들이 핵전략포격기와 핵항공모함까지 우리 코앞에 들이며 핵공격을 앞장서면서 도 제언에서그 누구의 《핵포기》를 떠들어대고있으니 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가스로는 망동인가. 이 세상에 자기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강도에게 제손으로 문을 열어들 머저리라고 하여 어디에 있었는가.

피폐들이 그 누구의 《변화》를 끌며 《핵포기》를 실현해보려는것은 실로 어리석은 망상이며 가련한 추태이다.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린 피폐대담의 책동을 명백히 북남대결과 북침전쟁도발 총계의 산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우리는 의세와 그 주구들의 악랄한 침략

피폐합동참모본부의 장총보인 최윤희가 전쟁 미치광이로서의 본색을 드러냈다. 이자는 며칠 전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북이 도발》하면 《도발원점은 물론 지휘, 지원세력》까지 《초토화》시키겠다고 허세를 부리었다. 그런가하면 《북의 핵과 미싸일대응방안》을 입에 올리면서 《킬 체인》을 통한 《선제타격》이니, 《미싸일방어체계에 의한 요격》이니 하고 기업을 토했다. 이자의 망발은 현 북남사이의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대화로의 길을 완전히 끊어놓고 북침전쟁의 불집을 거어어 터뜨리기 위한 피폐대담의 중심을 반영한것이다.

피폐합동참모본부는 사상 처음으로 합동참모본부의장직위를 따내게 된 들른 기쁨에 사로잡혀 민중이 속대에 오른듯이 기고만장해하며 흰 소리를 땅랑 뱉쳐대고있는 최윤희역도의 망동은 그야말로 조소를 자아낸다. 그레도 피폐군부에서 해군참모총장노릇까지 해먹었으면 핵억제력을 포함한 우리의 무진막강한 군사적위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피폐들이 구추하려 하는 《킬 체인》이니, 《미싸일방어체계》니 하는것은 결코 만능담이 아니다. 우리의 단호한 군사적행동이 시작되면 남조선지역에 완전초토화되는것은 순간이다. 피폐들이 구추해뒀던 민고는 미국의 《동맹》과 《연합작전체계》도 우리 혁명무력의 강위력한 군사적대응앞에서는 무뎠을 단박처럼 무너지고 말것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선제타격》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있는 속에 피폐대담부에서도 《킬 체인》이나 《미싸일방어체계》확보라는 불가늠하다. 《핵을 보유한 북을 선제타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 최윤희역도가 정찰위성이니, 《메트리오드》 성능개량이니 뭐니 하며 황실수설한것은 초보적인 군사사식도 모르는 미련한자의 어리석은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 북남관계와 조선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사태는 철두철미 우리의 체제전투 핵무장정책을 노린 미국과 그에 적극 추종하는 박근혜당장의 《북북정책》과 북침전쟁장악기의 필연적산물이다. 피폐진전세력 《핵포기》를 유도하기 위해 미친듯이 말악하고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조선반도핵문제는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피폐들의 가증되는 핵전쟁위험소동으로 하여 산생된것이다. 우리는 내외호전세력의 핵전쟁도발책동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한 자위적수단으로서 핵을 보유하고있다. 우리는 핵보유의 길로 떠돌던 범죄자들이 이제 와서 누구에게 사대질을 하며 《변화》니, 《핵포기》니 하고 고야대는가. 더우기 지금 우리 공화국을 압

박근혜와 그 일당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그것만이 우리의 무지비한 정벌을 면할수 있는 마지막기회이며 유일한 출로이다. 피폐대담은 우리의 준엄한 경고를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할

브나야 가제다》 그리고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재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 국제연합 인터넷홈페이지에 우리 인민의 강렬한 통일년원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함께 《조선민중은 통일을 확신하고있다》,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 《조선통일의 변함없는 기치》 등 제국들의 글을 편집하였다.

이제는 피폐들이 《변화》와 《핵포기》라는 어리석은 망상에선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피폐대담이 그 누구의 《변화》와 《핵포기》를 이끌어내려고 고야대며 계속 분수없이 해담한다면 온 민족의 저주와 규탄, 중국적과일의 운명속에 차레질것이다.

이러한 경고는 최윤희의 이번 망동이 곧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현 피폐진전세력의 필사적인 말악이라는것이다. 이자가 《도발원점과 지인

이런 통합진보당에 대한 탄압에서 나타났다고 인정하였다. 박근혜 《정부가 자주, 민주, 통일을 추구하는 사람들로써 싸지 않고 말리워주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공안란말 막아내라.》고 위협했다. 첩보가 끝난 다음 그들은 서울역까지 《정부》파소독 세력까지 세출시킨 현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행진을 벌였다.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여러 나라에서 성명 발표, 출판보도물들 특집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반드시 통일될 것이다.

성명은 남조선피폐들이 민족 자주정신에 기초하여 북남사이의 화해를 도모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할 대신 미국의 반동일적책에 편승하여왔으며 특히 리명백대담에 뒤이어 박근혜대담도 동족대결책동에 광분하고있는 데 대해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첫째로, 우리는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꾸준하고도 성의있는 노력에 굳은 령대성을 보인다.

력사적인 10.4선언발표 6주에 즈음하여 핀란드백두회회가 5일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김정일동지께서 남조선대통령 무우현을 접견해주신 때로부터 6년세월이 흘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북남수뇌상봉에서는 6.15공동선언의 정신이 재확인되고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발표되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실천 강령이다. 선언들은 조선통일의 리정표이다. 세계 진보적인민들은 력사적인 북남선언들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그러나 북남선언들은 리행되지 못하고있다. 평화적으로 살려는 조선인민의 념원은 미국과 남조선보수세력들의 책동으로 하여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령대성을 보내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선언들에 대한 자해와 편장을 바라고자며 미국과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로,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사대와 매국을 팔장내고 나라의 통일을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이룩해나갈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는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지지와 령대성을 보내면서 남조선당국이 북남선언들에 대한 자해와 편장을 바라고자며 미국과의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정일 령도 아래서 조선민주주의적경치에서 제시된 조국통일방안과 보도들을 조국통일 3대원칙으로 정립하시였으며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땅히 우리 나라의 통일을 위한 지침으로 삼아야 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셋째로, 우리는 미국이 동족대결을 부추기는 행위를 당장 중지시키고 남조선주둔 미군을 철거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신론 《빠드리오》, 《인터네트신문》, 잡지들인 《에지니아 프레이》, 《경례위》, 《마르 12》, 로스토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회와 반(세계화)운동 인터넷홈페이지들, 우크라이나인터넷신문 《오백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인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8일과 9일 여러 나라 신문, 방송, 통신이 보도하였다. 타이신론 《양코프 포스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핵동력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군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주변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인민군 각 공중, 군단급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할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미군의 핵타격수단들이 불의에 당할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황에도 그것들을 때없이 들이밀고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조선인민과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떤 적대세력의 협박한 도발책동도 자체의 막강한 군력으로 순간에 짓부셔 자신

일 함 알리에브 아제르바이잔대통령으로 재선 일함 알리에브가 아제르바이잔대통령으로 재선되었다. 그는 나라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나라에서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압도적다수의 지지를 받았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담화를

여러 나라에서 보도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인 조선반도정세가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는것과 관련하여 발표한 담화를 8일과 9일 여러 나라 신문, 방송, 통신이 보도하였다. 타이신론 《양코프 포스트》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이 담화를 발표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대변인은 조선반도의 정세가 또다시 악화일로로 치닫고있다고 강조하고 미국은 핵동력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군의 핵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주변지역 상공과 수역들에 더 자주, 더 깊이 들어올수록 틀림없이 예상할수 없는 참사를 빚어내게 된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조선인민군 각 공중, 군단급부대들에서는 최고사령부로부터 임의의 시각에 즉시 작전에 진입할수 있는 동원태세를 유지할데 대한 긴급지시를 접수하였다고 하면서 그는 미군의 핵타격수단들이 불의에 당할수 있는 참혹한 참사에 대해서는 그 어떤 정황에도 그것들을 때없이 들이밀고있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조선인민과 군대가 이 세상 그 어떤 적대세력의 협박한 도발책동도 자체의 막강한 군력으로 순간에 짓부셔 자신

미국의 내정간섭행위 배격

베네수엘라국회의 의장 디스다도 카벨리오가 최근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내정간섭행위를 배격하는 립장을 밝혔다. 그는 얼마전 미국이 베네수엘라대통령의 유엔총회참가를 가로막아놓았으며 이 나라 주재 미국의교관들이 내정부음모에 가담한 사실에 대해 폭로단죄화

심각한 실업문제

유럽동맹 성원국들에서 금융경제위기의 후과로 실업문제가 의연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1일 유럽동맹 통계국은 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8월에 동맹성원국들의 실업자수가 2 659만 5 000명에 달하였다고 밝혔다.

국제 체육 소식

2013년 세계날치기사격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날치기사격선수권대회가 9월 15일부터 9월 24일까지 베루의 리마에서 진행되었다. 국제축구연맹 2013년 모래리축구월드컵경기대회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타이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16개 팀이 4개 조로 나누어 조별리그전을 진행하고 예선에서 1,2위를 한 팀이 준준결승전에 진출하였다. 2013년 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 국제유술연맹 2013년 그랜드상유술경기대회가 9월 28일과 9월 29일에 까자흐스탄의 알마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서는 까자흐스탄이 금

세계경제에 부정적영향을 줄수 있는 미련방정부패쇄사태

이미 보도원바와 같이 10월 1일 미련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미국가항공우주국, 국제국, 국립공원들과 박물관 등이 문을 닫고 미련방정부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일시 해고되었다고 한다. 언론들은 해고된 공무원들이 수십만명 지어 100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하고있다. 국방, 반매도 등과 관련한 업무들은 행정부서들은 정상운영되겠지만 미련방정부의 기능은 미비되었다. 그것은 미련방정부의 돈줄이 잘라졌기때문이다. 미국가는 민주당주도의 오바마행정부가 제출한 2014 회계년도 예산안을 부결하여 리방정부의 돈줄을 막아버렸다. 미련방정부는 2014 회계년도 예산을 10월 1일부터이다. 결국 국회에서 예산안이 합의되지 못해 미련방정부는 반산불수치못해되고말았다.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미국정치의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민주당과 공화당사이의 당파싸움에 있다. 미국의 두당은 국회내에서 의로보합계협관연 예산안이 없다는 2014 회계년도 예산안을 놓고 9월 27일 싸움을 벌였다. 미국의 의로보합계도가 매우